

					I-B-1
제목	국문	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성((性)상담 내용분석			
	영문	Content Analysis for Sexuality Counseling Using the Internet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이무식, 김은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
	영문	Eun-Young Kim, Moo-Sik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Konyang University			
분야	보건관리 [모자보건]	발표자	김은영 [전공의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1. 목적</p> <p>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성상담 홈페이지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,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성상담의 내용분석으로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성교육 및 성상담 요구도를 파악,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상담 지침의 개발과 적절하고 타당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이트의 구성과 내용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였다.</p> <p>2. 방법</p> <p>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1개 시 지역의 모자보건시범사업(보령시, 1999; 보령시보건소, 1999,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등, 2000)의 일환을 진행된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. 홈페이지는 시범사업 협력대학의 서버에 성 의학 및 성건강증진 사이트(http://med.konyang.ac.kr/sexedu)(그림 1)를 개설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을 진행하였다. 상담은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협력대학에서 시범운영을 하였다.</p> <p>위의 상담체계를 통하여 수집된 상담자료는 공개상담 및 비공개상담으로 분류하여 상담일자, 요일, 상담시간, 연령, 성별, 직업, 학년, 결혼유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상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.</p> <p>성 상담 내용분석은 상담의 핵심개념(key concept), 핵심개념별 주제(topics), 성의 구성요소, 필요한 성교육의 단계 등을 기본 틀로 이용하였다. 성상담의 핵심개념은 인간발달, 인간관계, 대인기술, 성 행태, 성 건강, 사회와 문화 등 6개 범주였으며, 주제는 핵심개념별로 포함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미국 SIECUS의 지침(The U.S. Guidelines, SIECUS, 1999)을 사용한 것이다(표 1). 성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성, 생리적 성, 정신적 성, 도덕적 성 등 4 범주로 분류하였으며((Bruce, Greenberg, 1988)(표 2), 필요한 성교육의 단계분류는 기본적 성교육, 예방적 성교육, 치료적 성교육 등으로 분류하였다(정금희, 1999).</p> <p>3. 결과</p> <p>1. 성상담 이용자는 10대가 53.3%로 가장 많았으며, 남자가 57.8%, 학생이 83.9%(고등학생이 42.9%)였고, 미혼자가 86.0%였다. 비공개상담이용자는 20대 55.5%, 공개상담 이용자는 10대가 58.0%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, 성별, 직업별로도 공개 및 비공개상담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p)</p> <p>2. 상담이용 요일별 분포는 수요일이 가장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상담 요청시간별로는 오후 시간인 12-24시가 대부분이었으며, 공개 및 비공개상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p)</p> <p>3. 성상담의 형태에 따른 성상담의 핵심개념의 분포에서 인간발달 55.4%, 성건강 37.7%, 성행태 25.3% 등으로 공개 및 비공개 상담별로 유의한 분포 차이는 없었다.</p>					

4. 핵심개념별 주제분포를 살펴보면 인간발달에서는 생식(임신과 생리), 생식기 해부 및 생리가, 인간관계에서는 결혼과 생활, 대인기술에서는 협상, 성행태에서는 자위행위, 성건강에서는 생식보건, 사회와 문화에서는 섹슈얼리티와 대중매체가 가장 많았다.
5. 성상담의 구성요소별 내용분석에서 생리적 성이 95.9%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, 정신적 성 5.6%, 도덕적 성 1.2%, 사회적 성 1.1% 등이었으며, 공개 및 비공개 상담별로 별다른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6. 성상담에서의 필요한 성교육 단계별 구성요소 분포는 기본적인 성교육은 83.2%, 예방적 성교육 46.8%, 치료적 성교육은 26.8%로 공개 및 비공개 상담별로 별다른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4. 고찰

성상담 내용분석을 통하여 본 성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성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면

1.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이전단계에서의 성상담 및 성교육이 필요하며,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2. 적어도 인터넷 상담에서는 오후 시간을 이용한 상담자가 많으므로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오후시간에 집중으로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.
3. 성상담 및 성교육의 내용개발에서는 인간발달, 성건강, 성행태 등, 생리적 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개발이 필요할 것이다.
4. 성상담 및 성교육에 필요한 단계로 기본적인 성교육에 중점을 두고, 예방적 성교육, 치료적인 성에도 그 비중을 일부분 할당되어야 한다.